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전후 지낸 일이 다 정한 운명인 줄 알고, 더욱 슬퍼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전생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 지나간 고생과 지금 병든 아버가 굶주리고 슬퍼하여 죽게 될 일을 생각하니 간장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하니, 용왕이 말하기를,  
 “이제는 너의 고생이 다 끝나고 이후에 ㉡ 무궁한 복을 누릴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내와서 먹이라 하니, 얼마 후에 시녀가 붉은 소반에 차를 내오는데 백옥 잔에 안개 같은 차와 대추 같은 과일이었다. 청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맑아져서 전생의 일이 분명히 기억났다. 부왕(父王)의 용안을 새롭게 알아보며, 좌우 시녀가 전생에 자기 앞에서 심부름하던 무리인 줄 아니 반감기 그지없었다. 자기가 본디 천일주를 맡아보다가 ㉢ 노군을 불쌍히 여겨 술을 훔쳐 먹이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나니, 슬픈 마음이 새로워 부인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제가 인간 세상에서 고초를 겪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 도로 나가지 말고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면 전날의 고초는 일장춘몽이 될 것이니 어찌 ㉣ 천명을 어기겠느냐?”  
 하고, 시녀를 명하여,  
 “청을 후원 별당으로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라.”  
 하였다.  
 청이 시녀를 따라 후원 별당에 이르니 집안에 벌여놓은 것

들이 모두 전날에 보던 것이었다.  
 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겼으니 어찌 볼 수가 있겠는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문득 기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웃 사람들이 그 형편을 참혹히 여겨 붙들어 손발을 주무르고 더운물을 입에 떠 넣어 구호하니,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려 손으로 벽을 치며 통곡했다.

“불쌍하다 내 딸아, 세 살에 어미를 잃고 가련한 어린 아기 어미를 부르짖어 울 적에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목숨이 모질어 죽지 못하고 사는 중에 ㉤ 앞 못 보는 병신까지 되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집안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 하루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 추위와 더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빌어다가 잠시도 배고프지 않게 해 주더니, 이제 아버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네 정성은 지극하나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아아, 하늘이여, 집안 살림이 어렵거든 눈이나 성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넉넉하거나 할 일이지, 제 어찌 애를 그토록 태우며 죽을 곳에 나아갔단 말이나? 슬프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참혹한데 나는 오랜 병에 성한 자식을 눈앞에서 비명원사(非命冤死)케 하니, 설령 천지귀신이 그릇되게 여기지 아니하여 눈이 뜨인들 어찌 홀로 살아 이 설움을 참고 견디리오?”

하며, 이렇듯 밤낮으로 청을 부르며 통곡하니 이웃 사람이 그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홀로 애통해 하다가 스스로 위로하여 더듬어 보니, 청이 빌어다 모아 둔 양식과 마른 고기 반찬과 익힌 음식이 그릇마다 담겼거늘, 만지는 족족 가슴이 막히고 간장이 녹는 듯하여 아무리 슬픔을 억제하려 하나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다시금 딸을 부르짖어,

“불쌍하다, 너는 병신 아버를 이같이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너를 죽을 곳에 보내고도 태연하니 이게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느냐?”

하며, 밤낮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눈바람이 몰아쳐 뼈에 사무치고 적막한 빈집에 인적이 끊어지니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청이뿐이었고, 얼굴은 헐쭉하여 뼈만 남아 있었다.

- 심청전 (경판본) -

53. 위 글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인물간의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④ 비장미와 골계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 ⑤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켜 사건을 전개한다.